

용비어천가 | 정인지 외

[제53장]

四海(사해)를 平定(평정)하샤 길 우희 糧食(양식)니저니 塞外北狄(새외북적)인들 아니 오리잇가
四境(사경)을 開拓(개척)하샤 섬 안해 도죽 니저니 徼外南蠻(요외남만)인들 아니 오리잇가

(당나라 태종은) 천하를 평정하시어, 길 가는 이가 양식을 잊으니 (즉 굳이 양식을 지니고 다니지 않아도 나그네가 굶는 일이 없을 정도로 태평하니),
변방 밖의 북쪽 오랑캐, 즉 돌궐인들 어찌 아니 찾아오겠습니까?

(태조 이성계가) 나라의 사방을 개척하시어 섬에서 도적을 잊으니, 변방밖의 남쪽 오랑캐 즉, 유구국과 섬라국 인들이 어찌 아니 찾아오겠습니까?

[제54장]

禮義(예의)를 앗기샤 兵馬(병마)를 머추어시니 徼外南蠻(요외남만)인들 아니 오리잇가
才勇(재용)을 앗기샤 金刃(금인)을 브려시니 徼外北狄(요외북적)인들 아니 오리잇가

(노나라가) 예의 있음을 (한나라 고조가) 중하게 여겨 병마를 멈추시니, 변방 밖의 남쪽 오랑캐인들 어찌 아니 찾아오겠습니까?

(원나라 장수 조무의) 재주와 용기를 (태조 이성계가) 아끼시어, 쇠붙이 무기를 버리니, 변방 밖의 북쪽 오랑캐인들 어찌 아니 찾아오겠습니까?

[제55장]

逐鹿未擒(축록미기)에 燕人(연인)이 向慕(향모)하샤 梟騎(효기) 보내야 戰陣(전진)을 돕스븐니
潛龍(잠룡)未飛(미비)에 北人(북인)이 服事(복사)하샤 弓劍(궁검)츠습고 左右(좌우)에 좇즈븐니

(한나라 유방이) 사슴을 쫓아 잡기 전에 연나라 사람들이 (한나라 유방을) 사모하여 날랜 기마병을 보내어 전쟁을 도와드리니.
물에 잠긴 용 즉, 태조 이성계가 아직 날지 않매, 북쪽 사람들이 심복하여 칼과 활을 차고 (태조의) 곁에서 섬기니.